

“우치공원, 주제공원으로 전환해야”

시설물 제한 없애고 민자 통해 다양한 시설 도입 市, 기본구상용역 최종 보고...활성화 방안 제시

호남 최대 종합위락공원인 광주 우치공원이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전환해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는 등 미래지향 공원으로 거듭난다.

광주시는 5일 시청 세미나 2실에서 ‘우치공원 활성화와 기본구상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우치공원 활성화와 기본구상 방향을 제시했다.

T/F는 우치공원 활성화를 위해 ‘근린공원’인 우치공원을 시설물 제한이 없는 ‘주제공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현재 공원녹지법상 근린공원은 녹지율 60%, 시설물 4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치공원은 1987년 9월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후 동물원과 유원시설, 체육시설 등이 조성되면서 현재 공원 시설률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도입할 경우 기존 공원시설 일부를 축소하거나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공원을 그대로 유지되던 공원 성격에 시설물 제한이 없는 주제공원으로 변경해 다양한 시설이 조

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날 열린 최종보고회에서는 산림레포츠 도입을 위해 일몰제로 해제된 산림지역을 공원으로 다시 편입하고 동물원 시설 개선, 대야제 수변 개발, 민자 유치 도입 방안 등으로 광주시 주도, 민간 주도, 광주시+민간이 함께 하는 방향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광주시 주도형 사업은 동물원 관람 동선 재정비, 관람 편의를 위한 전기카트 운영,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쉼터, 조경공간 리뉴얼과 포토존, 대야제 수변 둘레길, 진입 매표소 리모델링, 동물 캐릭터 조형물 설치 등이다.

민자유치 사업은 카라반 야영장 확대 조성, 수상 안전체험장, 전천후 수영장, 대야제 수상레포츠, 유원시설 놀이공간

바다 색채 변경, 야간경관 개선과 노후 유원시설에 대한 현재의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 지향적 놀이시설 교체 등이다.

광주시+민간 사업의 경우 산림을 활용한 특화 체험단지 제안을 위해 공원해제 구역을 다시 편입하고, 역사이팅 체험을 위한 루지, 디지털사파리, 숲길 체험공간, 롤러코스터 산책로, 숙박(호텔) 시설, 산림복원, 신규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안이 제안됐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우치공원을 활성화하려고 해도 시설물 제한에 막혀 새로운 시설 도입이 어려웠다”며 “이번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주제공원으로 변경되면 시민이 좋아하는 시설이 도입 가능하고 우치공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선강기자

道-국토안전관리원 ‘안전문화 정착’ 맞손

도민 안전확보 최우선 공동인식...건설안전 향상 협력

전남도는 5일 도청에서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건설안전 향상 업무협약을 했다.

전남도와 국토안전관리원은 도민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건설공사 안전 확보, 건설사고 초기 대응, 시설물 유지관리 등 건설안전 향상을 함께 노력해 안전하고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도내 건설현장과 특수교량 및 도시지역 대피시설 안전점검 ▲안전관리 기술 교류·건설팀 ▲건설안전 교육 지원·홍보 등 건설현장 안전 향상·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을 지원해 보다 발전된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

하고 현장점검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도민의 행복은 ‘안전’ 위에서 꽃피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건설안전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며 “협약을 계기로 전남 곳곳에 안전한 건설문화가 탄탄히 뿌리내려 ‘전남 행복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안전 전문기관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올해 중소기업 건설공사 1만6천여곳을 점검하는 등 국민의 안전보장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김재정기자

道, 자원봉사대상 대통령표창

전남도는 5일 “행정안전부의 2022년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전남인력 확충 등 인프라 구축으로 민간주도 자원봉사 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한창실 행안부 차관, 박정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이채익 국회의원, 라재건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상임대표, 권석필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 권미영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자원봉사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전국 자원봉사자, 기관·단체 등을 다양한 경로로 발굴해 공정한 검증과 심사를 통해 수여하는 자원봉사 분야의 가장 영예로운 상이다.

전남도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2004년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한 이래 관 주도의 획일적 자원봉사활동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다양성에 무게를 둔 자원봉사 문화 정착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고 안정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독립청사를 확보했다.

또 자원봉사 업무의 다양한 수요 발굴과 변화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2017년 제정, 매년 예산을 증액했다. 실제 2018년 15억원에서 2022년 22억원으로 늘었다.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모집·교육·관리 등을 위해 전남 인력 역량을 강화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 인프라 구축에 집중했다.

이 밖에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민관협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도 재난현장 긴급자원봉사단(17단체 300명)을 구성, 운영해 전 시·군에 확산토록 했다.

/김재정기자



일생을 민주화에 헌신한 대표적인 지식인 고(故) 송기숙 선생 전 전남대 명예교수 1주기 추모식이 5일 오전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가운데 유가족과 민주화운동 관련단체 관계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김재정기자

‘행동하는 지식인’ 故 송기숙 선생 1주기 추모식

姜시장 “녹두정신으로 세상 바르게 펴 나가겠다”

행동하는 지식인의 표상인 고(故) 송기숙 선생의 1주기 추모식이 5일 오전 광주시 북구 망월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추모식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광주전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광주전남작가회의, 송기숙선생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 등이 주최했으며 추모 행진을 시작으로 강기정 광주시장과 민주원로 등의 추모사, 고(故) 송기숙 선생의 육성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강기정 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우리는 선생님이 그린 신념 녹두장군

의 모습을 생각하며 청년 시절을 보냈다”며 “선생님이 남기고 가신 녹두정신과 주옥 같은 민주주의 말씀들을 생각하며 세상을 바르게 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생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며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몸은 쇠약해졌으나 정신은 그대로인 청춘들”이라며 “그곳에서 편히 쉬시고 늘 웃음으로 저희를 격려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1935년 완도에서 태어난 고(故) 송기숙 선생은 장흥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

다. 이후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포교육대학을 거쳐 1973년부터 모교인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1978년 동료 교수들과 유신 정권의 이념적 지표인 국민교육헌장을 비판하며 교육민주화를 선언한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과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참여로 두번의 옥고를 치렀다.

옥중에서 그의 대표작인 대화소설 ‘녹두장군’과 장편 ‘암태도’ 등을 집필했다. 이후에도 꾸준한 작품 활동 등을 통해 반독재·민주화 투쟁에 앞장서며 행동하는 지식인의 표상으로 불렸다.

/박선강기자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리...화재예방안전진단 신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달 1일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제·개정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5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번 분법 시행으로 복잡했던 기존 법이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분야로 나눠져 법률 내용을 국민이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새로 제정된 화재예방법은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소방훈련·교육 강화 등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화재예방안전진단은 특별관리시설물 중 공방(연면적 1천㎡ 이상), 공동구, 철도시설·항만(연

면적 5천㎡ 이상) 등에 대해 화재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해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또 기존 시장, 목조건물 밀집 지역에 적용된 ‘화재경계지구’를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화재예방 강화지구’로 변경했다. ‘소방특별조사’ 명칭은 이해하기 쉽게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대상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연면적 1만5천㎡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소방시설법 주요 개정 내용은 ▲성능위주 설계 대상 확대 ▲자체점검 결과 조치 강화 ▲최초 점검제도 도입 ▲건설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등이다. /박선강기자

전남개발공사, 무재해 안전경영 선포

전남개발공사는 5일 “최근 여수 죽림 1지구 도시개발사업 건설현장에서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경영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은 현장 경영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사고 없는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해 건설시공사의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여 전사적 안전실천을 다짐했다.

특히 장충모 사장은 이 자리에서 안전보건 최우선 경영방침을 대외적으로 선포했고 시공사 경영진 또한 건설현장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선포식 후에는 현장을 방문해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냉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특히 현장 내 최고령 근로자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며 재해취약자 입장에서의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등 건설근로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장충모 사장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며 “꾸준한 관심과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작업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잠시 멈춰주세요

- ☑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설 도로교통법
(2022.1.11)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 도로 등

보행자가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 확보 및 서행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경우, 서행 또는 일시 정지

후원 | 광주광역시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광주경찰청 | 광주광역시교육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 손해보험협회 | 시민행동 녹색여러나 | 협찬 | GTCL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구소 | 광주광역시남구